



대학주보

국제캠 보궐선거 D-14 '비대위 체제' 벗어나나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대표단 보궐선거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은 중앙동 아리연합회(중동연)와 공과대학(공대), 생명과학대학(생대)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전공/학과다.

앞서 지난 학생대표단 선거에서 중동연과 공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후보자가 없어 무산됐고, 생대는 단독 후보가 출마했으나 반대표가 과

반을 넘으며 학생회장단 선출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라인 비대면 투표로 이루어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현장 투표소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제캠 중선관위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위원장은 “지난 학기에 비해 대면 수업이 많아져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선거구에서 현장 투표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내온다면 중선관위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총학생회 SNS 채널, 각 학과·학년별 단체 메신저를 통한 ‘단톡방 선거유세’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선거운동 시에는 지난 학생대표단 선거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방역 수칙은 52대 중선관위와 우리대학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비말 차단 검증 마스크 착용 ▲라텍스 장갑 착용 의무화 ▲실내 출입인원 최대 3인 제

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 추천과 등록은 15일부터 16일까지, 선거운동은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투표율이 50%에 못 미칠 경우 투표기간은 연장된다. 연장투표에도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한 선거구는 올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중선관위는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숙한 학생자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대표단은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후 임기를 시작한다.

사령

명 <정기자>
이정민(의학 2019)
장혜림(환경학및환경공학 2020)

남자 전국 배드민턴 대회 우승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2021 전국동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대학 단체 부문에서 우리학교가 우승과 준우승을 나란히 거뒀다. 대회는 지난 1일부터 8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무관중으로 열렸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전에서는 1개교에서 최대 4조로 구성해 참가 가능했고, 우리학교는 두 조가 참가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남자대학 단체 부문 결승전은 경희대A와 경희대B의 대전이었다. 결과는 A조 우승, B조 준우승이었다. 경희대A조와 B조는 각각 인하대, 경동대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두 조를 모두 이끈 조한성 감독은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조 감독에 따르면 우리학교 선수팀은 지난 1월 동계 훈련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4면 ‘경희대 우승’으로 계속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국제캠퍼스 학생대표단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빅뱅에서 문명까지 돌아보기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특수한 과목이다. 우선 빅문은 대학가에서 보기 드문 ‘과학 필수 교양’이다. 과학 교양을 가진 학교는 많지만 특정 과학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또 각 분야의 과학 교수들이 빅문을 통해 팀 티칭, 플립러닝 등의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시도했다. 우리신문은 빅문 개설 5주년을 맞아 그 현재를 진단했다.

우리신문은 지난 2017년 빅문 수강생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빅문에 대한 만족도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목의 장단점을 물었다.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이들이 50%에 달했는데 당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특정 계열에 유리한 평가 방식(20.25%), 팀티칭으로 인한 혼란(11.04%), 한 강의에 너무 많은 수강생(9.82%) 등을 꼽았다.

▶6면 ‘빅문’으로 계속